

(가)
크리스마스 이브
눈 내리는 늦은 밤거리에 서서
집에서 혼자 기다리고 있는
늙은 아내를 생각한다

시시하다 그럴 테지만
밤늦도록 불을 켜놓고 손님을
기다리는 빵 가게에 들러
아내가 좋아하는 빵을 몇 가지
골라 사들고 서서
한사코 세워주지 않는
택시를 기다리며
20년 하고서도 6년 동안
함께 산 동지를 생각한다

아내는 그 동안 네 번 수술을 했고
나는 한 번 수술을 했다
그렇다, 아내는 네 번씩
깨진 항아리고 나는
한 번 깨진 항아리다
눈은 땅에 내리자마자
녹아 물이 되고 만다
목덜미에 내려 섬뜩섬뜩한
햇바닥을 들이밀기도 한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이브 늦은 밤거리에서
한번 깨진 항아리가
네 번 깨진 항아리를 생각하며
택시를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

-나태주, 「화이트 크리스마스」

(나)
어두운 방 안엔
빠알간 숯불이 피고,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애처로이 잦아드는 어린 목숨을 지키고 계시었다.

이윽고 눈 속을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오시었다.

아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 오신
그 붉은 산수유 열매-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젊은 아버지의 서느런 옷자락에
열로 상기한 불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이따금 뒷문이 눈을 치고 있었다.
그날 밤이 어찌면 성탄제의 밤이었을지도 모른다.

어느새 나도
그때의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

옛것이라곤 찾아볼 길 없는
성탄제 가까운 도시에는
이제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 내리는데,

서러운 서른 살 나의 이마에
불현듯 아버지의 서느런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눈 속에 따 오신 산수유 붉은 알알이
아직도 내 혈액 속에 녹아 흐르는 까닭일까.

-김종길, 「성탄제」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 풍자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 ② 회상을 통해 애상적인 분위기를 환기하고 있다.
- ③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으로 화자의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해 화자의 태도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 ⑤ 기념일을 배경으로 하는 개인적 경험을 사회적 논의로 확장하고 있다.

2.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 화자는 '할머니'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 ② [B] : '아버지'가 가지고 온 '약'은 '산수유 열매'이다.
- ③ [C] : '뒷문이 눈을 치고' 있는 동안 '어린 짐승'은 열에 시달리고 있다.
- ④ [D] : 화자는 '옛것' 찾아볼 길 없는 '마을'에 내리는 '옛날의 것'을 달갑지 않게 여기고 있다.
- ⑤ [E] : 현재의 화자가 과거의 '아버지'를 떠올리고 있다.

3.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크리스마스는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기독교의 기념일이다. 그러나 크리스마스뿐 아니라 크리스마스 전날인 이브 또한 현대엔 비(非)기독교인들도 즐기는 명절이 되었는데, 이는 문학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그러나. 문학에서 기념일과 명절은 단순히 즐거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예컨대 옛날의 기억이 지금은 실현 불가능할 때 기념일은 그리움을 상징할 것이기 때문이다. 매우 감각적이고 입체적이게 된 현대 문학에서, 기념일을 단순히 즐거운 날로 접근하고자 하는 시도는 바르지 않은 시도일 것이다.

- ① (가)에서 26년간 함께한 아내를 생각하는 것은 기념일이 아닌 일상에서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행위라고 보기는 힘들 수 있겠군.
- ② (가)에서 아내와 내가 수술한 경험을 떠올리는 것에서 기념일이 즐거움으로만 점철된 날은 아니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겠군.
- ③ (나)에서 산수유 열매와 관련된 화자의 경험은 옛것이라곤 모두 없어진 현재의 마을에선 재현되기 힘든 행위라고 볼 수 있겠군.
- ④ (나)에서 화자의 경험 속 가족 구성원들이 세상을 떠났다면 이 경험은 현재 재현 불가능한 행위로 화자에게 슬픔을 환기할 수 있겠군.
- ⑤ (가)와 (나) 모두 가족과 관련된 경험을 다룬다는 데에서, 성탄절의 본래 의미가 가족 공동체 내로 침투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군.

4. <보기 1>은 크리스마스와 눈사람을 주제로 한 어느 팝송의 가사 중 일부이다. <보기 2>의 조건을 바탕으로 이 노랫말과 (가)를 모두 함축하는 크리스마스 기념사를 쓴다고 할 때, 다음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I want you to know that I'm never leaving ♪
 ♪ 내가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을 내가 알길 바라 ♪
 Sia-Snowman 中

- 색채어를 사용할 것.
- 기념일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날임을 상기할 것.
- 즐거움을 유발함과 동시에 씁쓸함도 불러일으킬 것.

- 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은 있습니다. 즐거운 성탄절은 웃음만 가득하세요!
- ② 마시고 먹고 노래하는 성탄절! 크리스마스 트리를 함께 장식하며 소중한 시간을 보내요.
- ③ 매섭고 새하얀 눈보라 속에서도 누군가는 소중한 사람과 함께할 성탄절을 기대하며 집으로 향합니다. 풍요로운 성탄절이 되기를!
- ④ 예쁘게 장식된 리스와 트리를 바라보며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보내는 성탄절이에요.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 ⑤ 성탄절 후에 일주일의 채 지나지 않아 새해예요. 추운 날씨에도 기쁜 기념일은 찾아오기 마련이니깐 모두 행복하세요!